

“대중적 지지 획득에 실패”

자체 반성 나와

그동안의 교회여성운동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자체 반성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NCC 여성위원회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한 제2회 기독교여성운동 정책협의회에서 NCC 신학위원인 최말자 씨는 “여성해방 차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펼쳐온 교회여성운동이 최근들어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최 씨는 7,80년대의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로는 더 이상 대중들의 설득을 얻어낼 수 없다며 현 상황에 맞는 여성운동의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씨는 여성운동의 나갈 방향을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해가 되는 모든 요인과의 싸움’으로 잡고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명운동에 뒤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자체비판은 지난해 전체 교회여성운동의 목표로 설정했던 ‘군비축소를 통한 여성 복지비 증액’ 요구와 ‘여성안수’문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올해의 사업 목표를 지난해의 두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실천한다는 것과 농촌 문제를 교회여성운동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으로 집약했다.

‘농촌 살리기 운동’의 전개는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민족의 뿌리가 파괴된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한다. 농촌봉사 활동과 농수산물 직거래 운동 등 기존의 농촌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실천운동을 펴내는 계획이다.

또 교회여성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내에 기획팀을 구성, 운동의 전문화를 꾀한다는 방침도 이날 결정됐다.